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최규홍 교수

최규홍 교수와의 인터뷰를 위해 아침 일찍 신촌에 위치한 연세대학교를 찾았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긴 여름방학이 시작됐지만 교정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은색 돔이 보이는 과학관 건물. 최규홍 교수 연구실은 그 건물 6층이다. 연구실에 들어서니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다. 밤 새 비가 내렸건만 아침부터 후덥지근했다.

22년 전, 우리나라 우주과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우주과학회 탄생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최규홍 교수다.

“지금도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1957년 10월 4일! 그 당시 소련에서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 뉴스를 들었을 때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로켓, 소년의 가슴을 뒤흔들다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런 꿈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 같은데요?”

“그렇죠. 그날 이후 화학반에 들어갔습니다. 화약을 만들어 로켓을

쏘려고요. 과학실에 있는 약품을 혼합해서 화약을 만들었죠. 로켓이 터져서 화상도 입었는데, 아직까지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도 무척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공부를 할만큼 제가 제 자신을 보이도 정말 열성적이었어요.”

“지금으로 보자면 영재셨네요?”

“과학 과목에서 만큼은 영재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과목이 좀 뒤쳐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학에 갈 때 원하는 과를 갈 수 없었어요.”

항공공학과를 가고 싶었지만 점수 때문에 차선책으로 천문기상학과를 들어갔다. 로켓의 탄도 계산이나 위성의 궤도 계산에 관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막상 졸업할 때쯤 진로를 고민해보니 국내 현실은 막막했다.

“그때 우주과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학위를 마치고는 미국 위성 통신 회사에 들어가서

위성 궤도 관련 일을 했습니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 나일성 선생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그 인연으로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죠. 미국에서 돌아와 교수직을 맡으며 가장 먼저 했던 게 <GRE 특공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GRE: Graduate Record Examination. 미국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기본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학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천문대에서 합숙하면서까지 열심히 따라주었고요. 그런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주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 자부합니다.”

“현재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직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술연구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동안 연구 활동 외에도 기관평가 일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직을 맡은 공공기술연구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등 총 9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 중 이사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각 기관의 기관장을 선임하고, 예산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기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부담이 되는 자리 아닌가 싶은데요?”

“부담이 없을 수 없지요. 그리고 당연히 부담을 갖고 일을 진행해야만 하는 자리고요. 항상 공정하게, 원리원칙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 기준은 국제경쟁력이라고 한다. 외국 의 유사 기관과 벤치마킹을 통해 그 기관을 몇 년 후에 따라잡을 수 있는가를 꼭 묻는다고 한다. 학생들에게도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국제경쟁력. 국내 다른 대학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앞선 외국 대학과 경쟁하도록 가르친다. 목표치는 항상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크고, 높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쳐라!

“학교와 공공기술연구회 일을 하려면 한 주가 짧으실 것 같은데요.”

“한 때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그런데 제 생활이 그렇습니다. 1년 365일 중 명절을 빼고는 학교에 있죠. 솔직히 설에도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가족에게 너무하다 싶어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미치지 않고는 절대 1등 자리에 오를 수도 없고, 설사 그 자리에 올랐 다해도 오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미치라고 얘기합니다. 미쳐야만 이룰 수 있고, 미쳐야만 이룰 수 있는 꿈을 가지라고요.”

최규홍 교수 연구실 문에는 출석부가 붙어 있다. 매일 아침 등교하면 출석 체크를 해야한다. 만일 지각 하면 그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다. 부지런한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제자들 역시 부지런해야 하고, 미쳐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순응할 때 순응해야죠. 지금까지는 치열하게 후학들을 채찍질 하여 준마로 키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정말 미친 듯이 달려왔죠.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달릴 수만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최규홍 교수는 청소년 과학기술 진흥단장직을 맡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강의를 하다보면 음향 시설이 없는 곳도 많단다. 그래서 얼마 전 작은 앰프를 하나 장만했다. 앰프를 꺼내 와 기자에게 보이며 말을 잇는 최규홍 교수의 진지한 표정 속에서 다음 세대가 만들어갈 대한민국 우주 과학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 얼마 전 우주비행제어 연구실이 국가지정연구소로 지정되었다.



» 청소년 강의를 위해 마련한 작은 앰프를 꺼내 보여 주는 최규홍 교수.